

눈물의 정치학 정치인은 왜 우는가?

서민 눈물 외면하고 정작 그들이 눈물 흘리나?
조선 사대부의 눈물에서
힐러리·노무현의 눈물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는 누구인가?

무급 서점 점원 하며 고전 섭렵...
MB정부 태풍의 핵, 신문·방송 겸업 요리 사동



한나라당 新실세 정몽준 인터뷰

한반도 AI 大공습
창 없는 축사에 닭·오리 가둬 키우는 데 따른 재앙인가?

2008 뉴거버넌스 리더십메달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나?
수상자 13인 활동상 & 스타일

신지식인 10년,
3,500명
그들은 지금...

→ 전시행정의 피해자 눈물의 세월 보낸다

김호기 교수의 책·담론·지식인(3)
자유주의자 김수영·이어령의 꿈 & 고뇌

박근혜 신드롬

선거관마다 바람이 되는 이유
언제까지 '계파정치' 계속할까?

심층기획 278 신지식인 153명 긴급 e메일 서베이
신지식인 선정 10년, 그들은... “기문의 영광에서 버려진 자식 신세로”
김태운

→ 284 신지식인 서원교 회계사의 눈물

Contents

“공무원과 관변학자들이 정부 회계 다망친다”



296 **농부 서연의 생태산문**
대지가 여원 몸을 뒤척일 적에 ⑤
“이년아, 올 서방님 반찬 없는데 어떡할래?”

300 **BOOK 1**
〈크기의 과학〉
생명체 크기가 다른 이유?
이덕환

302 **BOOK 2**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다)
시로 사랑하고, 노래하며, 투쟁했던...
구본형

304 **Smile & laugh**
〈월간중앙〉 행복한 마침표
박미소

정기구독 안내 국내 1년 정기구독료 144,000원

해외 정기구독

구분 지역	항공료	1년 구독료	금액
1지역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	45,000원	144,000원	189,000원
2지역 태국·싱가포르·동남아	69,600원	144,000원	213,600원
3지역 미국·캐나다·유럽·중동·호주·러시아	90,000원	144,000원	234,000원
4지역 아프리카·중남미·남태평양	128,000원	144,000원	272,000원

-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나 팩스로도 구독접수합니다.
(주소 변경 포함)
구독문의 1588-5792 팩스: (02)2000-5390
- 지로로 구독료를 내실 분께는 지로용지를 우송해 드립니다.
- 온라인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금융기관에서 무통장입금(예금주: 중앙일보 시사미디어)하시면 됩니다.
입금 후 즉시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815-01-0406-594
- 외환은행 027-22-01107-7
- 하나은행 194-810186-42205
- 농협 013-01-285601

monthly.joins.com

정기구독 신청 및 배달사고 접수

- 중앙지사 (02)751-9481~2
- 서울1지사 (02)751-9483~4
- SM지사 (02)364-7323
- 부산1지사 (051)819-4611
- 부산3지사 (051)469-1150
- 부산영남지사 (051)441-3114
- 대구경북지사 (053)954-5106
- 중부지사 (043)258-2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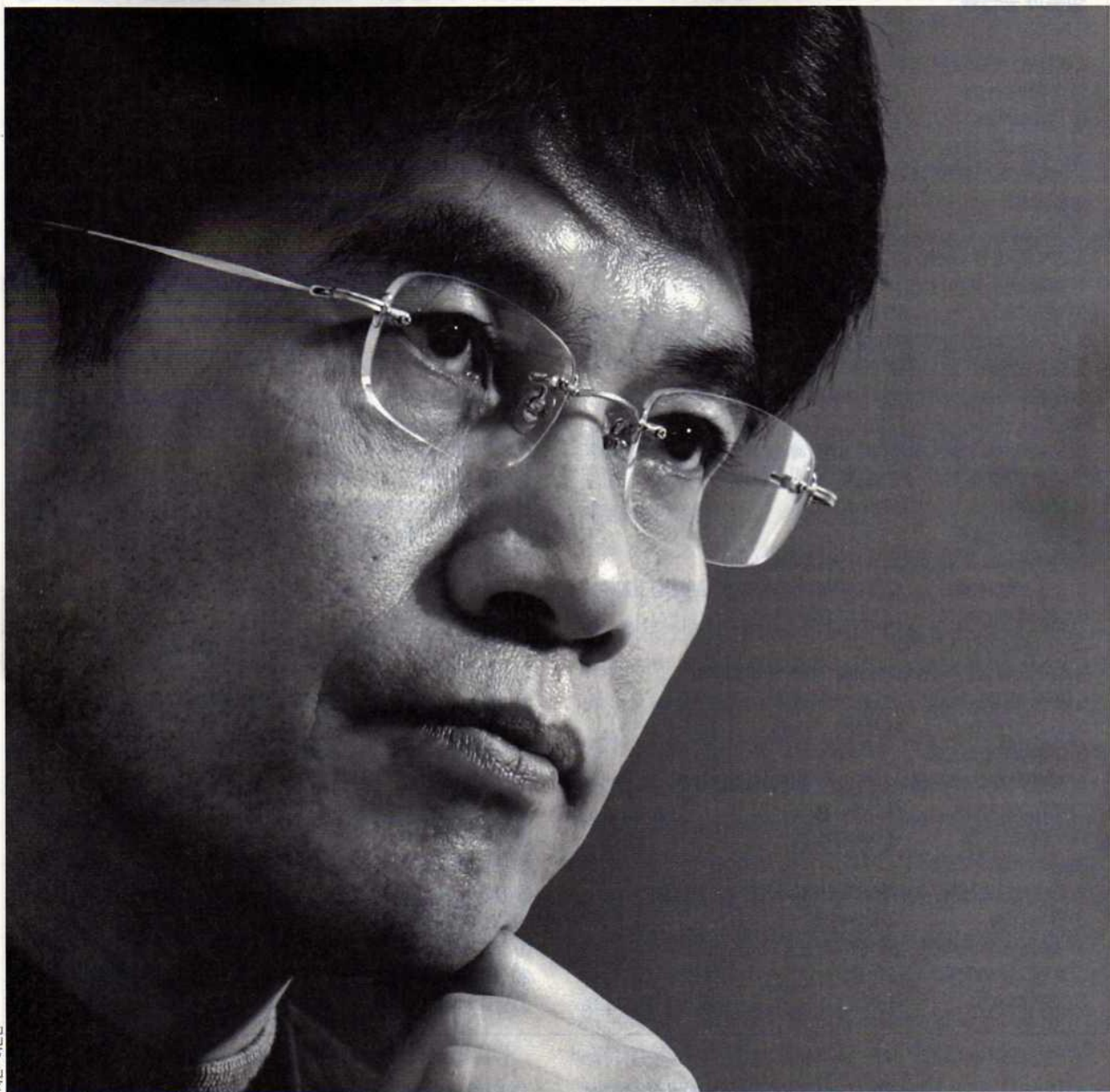


사진: 이진원

“공무원과 관변학자들이 정부 회계 다 망친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회계 시스템' 구축해 놓고 정부가 자랑 못하는 이유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돼 있는 회계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혁신적이고 쉬운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놓고 자랑하지 못한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어느 신지식인의 절규를 통해 복잡한 속사정을 들어봤다.

글* 김태윤 월간중앙 기자 [pin21@joongang.co.kr]

- 지자체 회계 시스템 놓고 '회계사-국립대 교수' 8년째 소송 중
- 서원교 회계사 "공무원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 주장
- 모 대학교수 "서 회계사 개발한 회계원리는 노벨상 감"
- 행안부 "실체 없는 주장일 뿐"... 진상조사 외면하는 정부, 왜?

“제 인생은 2001년에서 멈췄습니다. 인생이 망가지 버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서원교(48) 회계사에게 2001년은 잊을 수 없는 해다. 운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는 세계 회계학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됐을지 모른다. 운이 나쁘지 않았다면 큰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정말 운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는 8년여의 세월을 송사에 매달려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생을 바쳐 가꿔온 사업을 빼앗겼고,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시간을 잃었다”고 했다. 더욱 중요한 것.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천주교 신자라는 그가 하는 말이다.

불행은 그가 신지식인에 선정된 2001년 7월을 전후해 찾아왔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봄날’ 같았다. 1984년 공인회계사가 된 그는 1990년대 중반 기준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 회계원리를 창안한다. ‘AIA(Activity Information Accounting :활동정보회계)’라는 회계 원리다.

회계는 흔히 기업의 언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언어는 매우 어렵다. 서 회계사는 “‘AIA’의 최대 강점은 회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차변 같은 어려운 회계 지식이 없어도 한 번의 입력으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각종 재무제표를 산출해낼 수 있다.

세계적 회계 시스템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직접법 현금흐름표’ ‘월가보고서’도 한 번의 입력으로 산출된다는 것이 서 회계사의 설명이다. 이 원리는 당시 여러 논문에서 인용됐다. 현 산림청장인 하영제 청장도 그의 박사학위 논문(2000년)에 ‘AIA’를 인용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차변과 대변 입력이 없는 복식부기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15세기 이후 줄곧 써온 복식부기의 개념을 완전히 깨버린 이 회계원리에 대해 한 대학교수는 1998년 말 열린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AIA는 기존 회계와 전혀 다른 방식이며, 회계학분야의 노벨상 감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계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소문이 나자 청와대에서 그를 불렀다. 기존 단식부기 회계 방

식에서 선진국처럼 복식부기로 정부 회계제도를 바꾸려는 청와대의 눈에 그가 들어온 것이다. 1998년 10월 그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비서관을 만나 ‘AIA’를 설명했다.

그다음은 일사천리였다. 그해 12월 2일 서원교 회계사로부터 ‘AIA’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태동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바로 다음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즉각 추진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시간을 좀 뛰어넘자. 지난해 전국 지자체는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6년여에 걸친 긴 여정이었다.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식이다. 지방 회계 담당 공무원 누구나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시스템이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 회계담당 공무원은 “차변·대변을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간 돈 항목의 코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쉽다”고 말했다. 그는 “차변·대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원리 정도만 교육받는다”고 말했다.

‘혁신적 회계원리’로 신지식인 선정

이런 방식은 외국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다. 회계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조금만 잘해도 확 대포장해 자랑하기 좋아하는 정부가 이 혁신적 지자체 회계 시스템 방식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새로운 복식부기 시스템을 지자체에 도입했다는 보도자료는 쌓였지만 정작 전 세계 회계학회가 주목할 만한 ‘쉬운 회계처리 방식’이라고 자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왜일까?

다시 1998년 말로 돌아가자.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후 정부는 1999년 2월 지자체 복식부기 도입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같은 해 4월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청이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된다. 본격적인 연구용역(1차)은 1999년 12월에 시작됐다. 당시 1차 용역은 삼성SDS·산동회계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서 회계사가 운영하는 ‘이스턴컨설팅’은 규모가 워낙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삼성SDS의 하도급업체 성격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

2001년 3월 개발이 완료됐다. 개발된 시스템 명은 ‘LADI(라디)’였다. ‘LADI’는 서원교 회계사가 개발한 ‘AIA’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됐다(월간중앙)은 ‘LADI’에 관한 용역 결과 보고서, 과업지시서, 컨소시엄 간 계약서, 각종 공문서 등을 통해 ‘AIA’가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을 확인했다).

1차 용역 개발 후 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서에도 'LADI는 활동식 복식부기(AIA)를 채택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AIA 채택이 잘된 선택이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다. 당시 응답자의 97%가 '잘된 선택'이라고 답했고, 74.3%는 '사용이 쉽다'고 답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 회계사는 이후 닥칠 기막힌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도급업체로 참여했지만 핵심 기술을 갖고 있던 서 회계사는 2001년 11월부터 시작된 2차 용역에서 갑자기 배제된다. 동시에 'AIA'라는 단어도 사라진다.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AIA' 자체가 부정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서 회계사는 황망했다. 1년 가까이 부천시에서 상주하면서 개발했고, 2차 용역까지 구두약속을 받았는데,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그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된다. 2차 용역에는 이스턴컨설팅이 수행하던 용역업무를 G사가 대신 맡았다. 그런데 이 G사에서 원교 회계사가 운영하던 이스턴컨설팅의 대리사장이던 지방국립대 K교수와 부하직원이던 P씨가 깊숙이 관계하고 있었다. 이후 G사를 포함한 2차 용역 컨소시엄은 공문을 통해 '연구용역(1차 용역)에서 AIA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동분개방식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활동방식과 자동분개방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종래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기록과 처리 과정에서 차변과 대변이 필수다. 서 회계사의 활동방식(AIA)은 사실상 차변·대변이 필요 없는 복식부기 방식이다.

그래서 개발 당시 여러 학자들이 '회계 파괴' '노벨상 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자동분개는 차변과 대변 중 일부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동분개방식은 '복식부기=차변·대변'이라는 전통적 개념에 충실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회계 솔루션 업체들이 이 방식을 사용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1차 용역 때 개발된 'LADI'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일단 'AI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원가시스템이 삭제돼 버렸다. 당시 정부는 '단순히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분석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1차 용역 때 개발된 '원가시스템'이 더 발전돼야 할 2차 용역에서 삭

제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원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다. 1~2차 용역은 그야말로 시범사업이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당초 사업목적에 포함된 원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령은 이후에 정비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2차 용역은 2003년 9월 완료됐다. 시스템명은 'LADI'였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앞서 밝힌 대로 2차 용역 컨소시엄은 'LADI'에서 원가 시스템을 삭제했다.

특허 침해인가? 일방적 주장인가?

하지만 2004년 5월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과 관련, 원가 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 성과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행정원가 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졌는데 말이다.

'LADI'는 이후 'DAIS'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구축됐다. 현 행안부 사무관에게 "현재 지자체 회계 시스템은 원가 산정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원가 시스템은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회계사는 "당시 1~2차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만들다 모르고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서 회계사는 "이스턴컨설팅이 배제된 후 특허와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는데, 이를 공모한 자들이 2차 용역 시스템이 AIA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원가 시스템을 삭제하고, 회계 시스템 명칭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 회계사는 K교수와 부하직원이었던 P씨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P씨의 경우 서 회계사의 특허와 거의 같은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 신청하기까지 했다. 서 회계사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쉽게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꼬였다. K교수에 대해 법원은 '사문서 위조' 부분은 유죄를 내렸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K교수는 이 사건과 상관없이 재건축조합장을 하면서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했

놀라운 것은 '정부 회계 시스템의 진실'을 다툼해온 지난 8년간 회계학계·행정학계·정부·지자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원교 회계사는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 정부회계 발전을 위해 책까지 썼다.



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의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1, 2차 산출물(용역 결과)에 AIA 개념이 적용됐다는 증거가 없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매칭테이블(소프트웨어의 핵심 노하우를 담은 설계도)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법적 판단이 곧 진실은 아니다”라는 것이 서회계사의 주장이다.

서회계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AIA 노하우를 담은 매칭테이블 존재 자체를 부인했어요. 피고인과 학맥으로 얽혀 있는 증인(회계학자)도 처음에는 위증으로 일관하다 나중에 매칭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을 바꿔 매칭테이블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준 것 같아요. 하지만 차변·대변의 계정과목이 아니라 업무 코드를 입력해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당시 피고인 증인으로 출석한 한 교수도 처음에는 1, 2차 시스템 외에 다른 회계 시스템에서도 직접법 현금흐름표가 제공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가 제가 위증죄로 고소하자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K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AIA라는 것 자체가 별 것 아닌데 서회계사 혼자 수년째 우리와 공무원, 관계된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격노했다. 하지만 K교수는 199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IA’를 극찬했었다. 서회계사는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2001년 K교수에게 이스턴컨설팅의 경영을 위임했는데, 그 합의를 통해 ‘AIA는 회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명시돼 있다. 부하직원이었다가 K교수와 함께 G사로 자리를 옮겨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P씨는 “그 사람(서회계사) 때문에 나도 7~8년을 소송으로 허송세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교수와 P씨는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AIA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과 개인 간의 특허분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건권 호서대 교수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그는 “학자적 양심과 직책을 걸고 실명을 거론해도 좋다”고 했다. “서회계사가 개발한 회계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 세계적인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대한회계학회가 발행하는 <회계연구> 편집위원장인데, 독특하고 창의적인 회계 방법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지자체가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은 AIA와 사실상 같은 것이에요. 회계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권을 빼앗으려는 사람들한테서 회계사가 사기당한 것입니다. 솔직히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공무원들 찾아가 이 문제를 토론했을 때도 그들이 인정했거든요. 세계적인 사람이 어찌다 저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너무 안됐습니다.”

한 회계학자 “서원교가 사기당한 것”

취재 도중 서회계사와 수차례 언쟁을 해야 했다. ‘도대체 8년간 당신을 믿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었고, 그는 “회계가 어렵기도 하지만, 진실을 밝힐 만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 편”이라고 말했다. “진실도 아닌 일에 8년 세월을 허비했잖나?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라고도 했다.

서회계사는 “정부가 진상조사라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특허분쟁이 아니다”라며 “학문적 살인이자 정부 회계 발전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생을 걸고 싸우지만 어떤 결과를 맞을지 알 수 없다. 다만 놀라운 것은 ‘정부 회계 시스템의 진실’을 다툰 해온 지난 8년간 회계학계·행정학계·정부·지자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면, 애써 외면했거나…

서원교 회계사는 요즘 다시 일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350만 소상공인들은 비싼 회계 시스템 구입비와 위탁 비용 같은 회계 처리 비용이 부담스러워 복식부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이신고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죠. 이들을 위해 값싸고 손쉬운 복식부기 시스템을 보급하겠다는 꿈을 잃지 않고 있어요. 어렵게, 어렵게 시스템을 개발해 곧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주
한국메세나협회의회장

“예술은 한계 극복의 모멘텀...메세나 베푸는 기업 꼭 성공”

중앙일보 경제위클리

www.economistn.com

이코노미스트

2009.4.28 · 984호

오바마노믹스, 그 빛나간 약속

“취임 100일, 절반의 실패...2.0버전 희망엔진 재시동”

SERI-이코노미스트 연속기획(2)

대·중소기업 진정한 동반자의 길 찾기

인터뷰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비빔밥 경제학 예찬론 “우리엔 특별한 위기탈출 DNA 있다”

독점취재 4월 개관 앞둔 복합문화공간 ‘프라다 트랜스포머’
패션계 이단아 프라다의 서울 ‘경희궁 Dream’

3,500원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2009년 4월 28일자 제984호 | 서울 중구 순화동 2-6번지 중앙문화센터빌딩 6층 중앙일보사사미디어 | 대표 전화:1588-5792 | 매주 화요일 발행 | 등록번호 서울다06456(1983.12.15) |





총괄대표이사	김진웅
발행인 · 편집인	허의도
취재팀장	백우진
경제전문기자	이재광(행정학 · 사회학 박사)
기자	이석호 · 김태윤 · 이윤찬 한정연 · 임성은 · 최은경
C&B 혁신사업부	도성진(팀장) 이만훈 · 임재찬 · 오동근 · 이필재 · 윤석진
익스프레스팀	유상원(팀장)
지역연구센터	이재광(소장) · 황필선 · 천정원(연구원)
객원기자	박은경 · 이임광 · 이경자
교열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김진선 · 은희청
사진	프레스Q 최재영(포토디렉터) 박상문 · 이찬원 · 김현동 · 정치호 · 오상민 · 전민규
디자인	디자인 중앙 박동훈(실장) 이민자(팀장) · 윤미정 · 김화영
워싱턴	이상일 · 김정욱 / 뉴욕 남정호
도쿄	김동호 · 박소영 · 김현기
베이징	장세정 / 홍콩 최형규
파리	전진배
해외재휴사	BARRONS 中国企业家 東洋經濟
광고팀	천세윤(팀장) 김병규(차장) · 김윤재(과장) · 김별
서무	정소영
홍보팀	박형주(부장)
기획특집팀	이대휘 · 정재원 · 강재훈(이상 부장) · 김건록(차장)
경영지원실장	박형우(이사보)
경영지원팀	오영조(팀장) · 변희원(과장) · 박영아 · 김형철 성은현 · 정고은
기획마케팅 T/F	김용규(팀장)
마케팅팀	이상관(팀장) · 기형승(부장) · 권준혁(과장) · 유성현 심일심 · 김민주 · 이현주 · 정민경 · 조혜영 · 엄계숙
발행처	100-732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6번지 중앙문화센터빌딩 6층 서울다 06455 (1983.12.15)
등록번호	원색분해 · 출력
원색분해 · 출력	(주)삼화인쇄
인쇄	값 3,500원
값	1년 정기구독료 150,000원 (정가 175,000원에서 할인된 가격)
홈페이지	http://www.economistn.com editor@economistn.com
문의전화	취재팀 02-2000-5262~9 팩스 02-2000-5390 광고팀 02-2000-5275~9 정기구독신청 02-2000-5365 고객서비스센터 1588-5792

62 주식투자전략 - "상승세 꺾이면 급락할 수도" 펀드 투자전략 - 급등락? 3년은 앞만 보라

널뛰기 장세, 뛰어 말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흐드러졌던 서울 여의도의 벚꽃이 '핑크캐펫'으로 바뀌었다. 반대로 투자 시장은 다시 만개할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주식, 펀드 투자전략을 중간점검해 봤다.

66 대우증권 자산관리센터 이광호 부산 서면센터장

"맞춤형 자산관리의 '서면 本山' 이룰 것"

"저희는 고객을 통해 금(金)을 융(融)하게 하고 자(資)를 산(産)하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 회사 자산관리센터 이광호 서면센터장의 말이다.

68 '노후생활 안전판' 퇴직연금 제도 DB? DC?... 퇴직금 불리려면 목표부터 분명히!

52 인터뷰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조직은 줄이고 지식은 늘려라"

70 왜 회계사 서원교를 주목하는가? 10년 만에 혁신적 회계시스템 론칭

노다지 카페 'www.economistn.com'

'www.economistn.com'에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정기구독과 알찬 정보가 가득한 뉴스레터 신청도 여기에서 받습니다. 1년 365일 돈 되는 정보 등록 담아놓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구독료 납부
지료로 구독료를 내실 분께는 지료용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금융기관에서 무통장입금(예금주:중앙일보사사미디어)하시면 됩니다. 입금 후 즉시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815-01-0394-998 하나은행 194-610171-18405

▶▶아래 지사에서도 구독신청 받습니다
중앙일보사사지지사 021319-3636 중앙지사 021751-9481~2 SM지사 021364-7323~5 부산 1지사 0511819-4611 부산 3지사 051469-1150 부산영남지사 051441-3114 부산울산지사 1577-3066 부산경남지사 1566-7769 대구경북지사 0531954-5105~6

* 본지는 한국도서 잡지 주간신문 윌리엄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혁신적 회계시스템 개발, 서원교 회계사



10년 만의 론칭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이지킴’ 개발... 특히 침해로 9년간 소송”

10년 전, 서원교(49) 회계사는 그야말로 촉망 받는 인물이었다. 당시 어느 회계학회 세미나에서 한 대학교수는 서원교 회계사가 개발한 ‘AIA(Acitivity Information Accounting)’라는 회계원리를 ‘회계학계의 노벨상감’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는 신지식인에 선정됐고, 장

관상을 받았고, 언론에 소개됐다. 2001년에는 청와대(DJ정부)에서 그를 불렀다. 서회계사가 개발한 회계원리를 정부 회계시스템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그는 이제 오심을 바라본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서울시 사당동에 있다. 3평 남짓한 공간이다. 직원은 없

‘회계학계의 노벨상감’이라는 극찬을 들었던 한 회계시스템이 세상에 선보이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다. 영광과 배신, 음모와 좌절이 담긴 드라마의 주인공은 서원교 회계사와 그의 한이 어린 회계시스템 ‘이지킴’이다.

다. 그동안 그는 꼬박 9년을 송사에 매달렸다.

지루한 법정 싸움의 시작은 2001년이였다. 서 회계사의 주가가 한창이던 2000년 초 한 지방 국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찾아왔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서 회계사는 2001년 그에게 경영을 위임했다. 정부 회계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곧 서 회계사는 정부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대신 다른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동업자 K교수와 부하직원 P씨가 개입된 회사였다. 그만 몰랐다.

기장대행료보다 70% 저렴

서 회계사는 K교수와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P씨를 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년을 끈 재판에서 그는 졌다. 법원은 K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유죄를 내렸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허심판도 패했다.

그는 “인정하기 힘든 판결이었다”고 했다. 억울했던 그는 『정부회계원리』라는 책을 통해 AIA 개발, 동업, 재판 과정을 모두 밝혔고, 당사자들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이 책에 대해 판매 가처분 금지 같은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한 대학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 회계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것이었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회계방법론이 분명하다. 현재 지자체가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AIA와 사실상 같은 것이

다. 이권을 빼앗으려는 사람한테 회계사가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상상도 못했다. 이 사회에 정의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어찌됐든 사법적 판단은 끝이 났다. 서 회계사도 더 이상은 싸울 힘도 여력도 없다. 대신 새로운 시작에 나섰다. 그는 최근 한국, 미국, 호주, 대만, 중국에서 특허를 받았던 AIA 원리를 이용해 350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회계장부시스템 ‘이지키팅(www.easykeeping.com)’ 개발을 마쳤다. 그에겐 무려 10년 만의 론칭이었다. 이지키팅은 회계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온라인상에서 쉽게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다. 자산을 표기하는 차변, 부채와 자본을 표기하는 대변을 구분할 필요 없이 업종별 거래 내용만 입력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원가보고서까지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복식부기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이런 회계시스템은 국내외에 소개된 적이 없다.

“회계는 회계사의 것도 세무사의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업자가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경영상태와 재무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지키팅은 업종별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숫자만 입력하면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 회계사는 “대부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장부 능력이 없어서 세무사무소에 장부를 위탁하거나 아예 장부를 포기한 채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지키팅은 e-메일을 보낼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회계장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다. 예를 들어 약국의 경우 이지키팅에 회원가입을 해 ‘시티’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면 된다. 전문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선택해 기입만 하면



‘이지키팅’ 화면 캡처.

된다. 거래 용어는 매출, 매입, 비용, 받기, 갚기 등 일상적 용어로 돼 있다. 매출 부분이라면 보험조제수입, 비보험조제수입, 기타 상품매출별로 항목이 있어 있는 그대로 입력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세무장부와 재무제표를 만들어 준다.

“누구와도 제휴하겠다”

서비스되는 업종은 다양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병원·한의원, 약국, 유통업, 골프장, 동창회, 음식점, 종교단체,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고, 해당 업종별 맞춤형 기록 시스템이 제공된다. 다른 회계시스템이 제공하기 어려운 현금흐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용료는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월 3만원이다. 그렇다면, 이지키팅을 이용해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서 회계사는 “현금영수증 제도, 카드사용 의무화로 복식부기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절대적으로 컸겠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정부가 과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예전에는 세원 노출이 불투명해 추계신고를 할 때 이익이 더 컸지만, 요즘은 복식부기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할 때보다 많게는 2배 이상의 소득세를 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기장은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서

류가 근거돼야 한다. 기장은 자신의 실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인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이 때문에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략 월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이지키팅은 월 3만원)고 하지만 기장을 안 할 수도 없다. 무기장 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붙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키팅’은 세무사의 밥줄과도 상관이 있다. 이지키팅에 가입하면 월 3만원이면 기장 신고를 할 수 있는데 8만~10만원씩 주고 세무대리인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회계사는 “많은 세무사가 기장대행이 주수입원이었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 해 수백 명이 폐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제 세무사들도 세무 컨설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지키팅을 활용하면 고객의 기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기장대행 이상의 컨설팅 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회계사는 “이지키팅이 나만의 회계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지키팅은 회계 전문지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사업에 필요한 모든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전혀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들고, 그는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큰 욕심은 없이 보였다. 그는 “내가 개발한 회계 원리를 인정받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면서 회계의 주인은 회계사가 아니라 사업자여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며 “이지키팅은 공공의 재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지키팅 보급을 위해 어떤 누구와도 제휴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E]**

김태운 기자 · pin21@joongang.co.kr